



‘사랑의 연탄나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
가 주최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연탄 나눔’ 행사가 2월 14일 열린 가운데 자원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제주시지역 한 저소득 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는 자산형성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3년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

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정부 지원금과 민간 매칭 금액을 합해 3인 가구는 2400만원, 4인 가구는 2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은 본인이 매월 5만원 혹은 10만원을 저축하고 여기에 장려금과 자활근로사업단 수탁금을 합해 적립하는 제도다. 만약 3년 이내에 일반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평균 1100만원, 최대 1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올해 8차례 신청 기회가 있으며, 1차 모집은 3월 8일까지이다.

‘가난 탈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빈곤탈출률 2006년 35.4%에서 2009년 31.3%로

소득계층 고착 심화...보건사회연구원분석 결과

우리 사회에서 소득 계층 간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가구의 비율도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5637가구의 소득 추이를 추적·분석한 결과 빈곤탈출률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2005~2006년 35.4%에서 2006~2007년 33.2%, 2007~2008년 31.1%, 2008~2009년 31.3%로 낮아졌다.

이번 연구에서 ‘빈곤’의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설정됐고, 빈곤탈출률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소득이 빈곤선 이하였던 가구 가운데 해당 기간 빈곤선 위로 이동한 비율을 뜻한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조세·사회보장부담 등을 뺀 것이다.

경상소득 기준 빈곤탈출률도 2005~2006년 32.6%에서 2006~2007년 44.0%로 증가했다가 2007~

2008년 29.3%, 2008~2009년 28.8%로 하락했다. 빈곤층에서 탈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전까지 빈곤층이 아니었던 가구가 빈곤층에 편입된 비율을 뜻하는 빈곤진입률은 5년동안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5~2006년 7.7%, 2006~2007년 6.9%, 2007~2008년 7.3%, 2008~2009년 6.7%로 등락을 거듭했다.

모든 소득 계층에 걸쳐 계층 간 이동도 더뎠다.

2005년 기준 가구 소득을 1~5분위로 나눈 후 2009년 시점에서 소속 분위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05년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에 속했던 가정의 73.0%는 2009년에도 여전히 1분위에 머물러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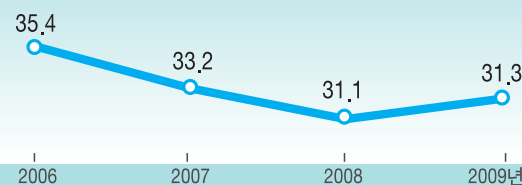
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의 약 80%도 같은 기간 제자리를 지켰다.

즉 5년간 자리 변동이 별로 없이 계층 간 이동이 쉽지 않았다는 걸 뜻한다.

특히 2005년 4분위에 속했던 가정의 변화가 심했는데 소득 분위가 낮아진 경우가 많았다. 2005년 기준 4분위 가정의 25%가 2009년에는 1~3분위로 떨어진 상태였다. 소득 4분위면 최상위 소득 계층인데, 4년 만에 최저 소득계층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빈곤진입률은 일정 범위에서 등락하는 반면 빈곤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반복 빈곤’ 혹은 ‘장기 빈곤’에 따른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단순한 소득 보조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가구가 장기적으로 소득 이동을 확보하는데 복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탈출률 추이 (단위: %)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면소개

종합 2·3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제주사회복지 1호 시설 탐방

사회복지소식 4·5면

지역이동센터 신나는 문화축제
노인일자리사업본격 추진

오피니언 6·7면

칼럼·기고

특집 8면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조성 토론회

3월부터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 변경」

2013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의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 변경」 지침에 따라 제주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에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변경되고 기부식품 이용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됩니다

▶ 이용 대상자 기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전체 이용자의 50% 범위 내)

▶ 이용 대상자 선정

-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가구

▶ 이용 방법

- 푸드뱅크 : 기부물품을 해당 가구에 직접 배달(월 1회 이상)
- 푸드마켓 :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해 물품 선택 후 수령(월 1회, 3개 품목)

▶ 이용 기간 : 1년(2013. 3월 ~ 2014. 2월)

※ 보건복지부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 변경」 지침

변경 전	변경 후(2013.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심	①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족구성원 수, 경제활동 여부, 학비 등을 감안해 상담 등을 통해 기부식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해당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
기부식품제공기간 미설정	기부식품제공기간은 1년 단위(기준)로 변경하며, 상담 등을 통해 연장 가능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도, 내년까지 복지부 권장수준 달성 목표

시설유형별 직급 9개로…각종 수당도 통합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에는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의 94%에 머물고 있는 보수를 연차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연봉제로의 개편을 권고했으나 제주지역은 종전 보수체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별로 보

수체계가 제각각인 데다 시설운영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 운영하다보니 시설별 종사자들의 보수 차이가 발생하고 장기 근로자 채용을 꺼려왔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시설유형별로 4~9개로 이뤄져 있는 직급을 9개의 직급으로 통일해 각 직급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가 지원된다.

기존 기본급 외에 10여개의 수당으로 구성돼 있던 보수체계도 시간외수당과 가족수당 등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통합해 연봉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들의 보수를 2014년까지 복지부 권장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가 복지부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이를 개선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며 “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을 감소는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실태를 조사하고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 왔다.

장한 장애인대상수상후보자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도 장한 장애인대상 수상 후보자를 3월15일까지 추천받아 4월에 수상자를 선정한다.

추천 분야는 장한 장애인대상, 장애인어버이대상, 장애인도우미대상 등 3개 부문이다.

장한장애인대상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를 극복해 모범생활을 하는 장애인, 장애인어버이대상은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장애인 부모, 장애인도우미대상은 장애 극복이나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준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행정시장, 제주도 장애인단체장, 자원봉사협의회장, 20세 이상의 도민 20인 이상 연서로 가능하다. 제주도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 오는 4월 20일 제33회 장애인의 날에 시상한다.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추진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오는 8월 설립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여성가족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기칭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여성가족연구원은 오는 8월 문을 열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에 출연금 1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연구원 설립 추진에 따른 조례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동 불편한 노인 찾아 이·미용 봉사 거린사슴봉사회, 서귀포시 어르신들 머리손질



거린사슴봉사회(회장 강홍순)는 2월 1일 서귀포시 동홍주공 6단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2007년 옛 탐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거린사슴봉사 동아리 회원들은 이날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해 줬다.

이날 머리를 손질한 이모(73) 할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무료로 머리를 손질해줘 감사하다”며 “예쁘게 손질된 머리를 보니 기분도 좋고 자원봉사자들이 무척 친절하게 대해줘 더욱 기분이 좋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봉사활동을 주관한 강홍순 회장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준 회원들에게 고맙다”며 “어르신들이 머리 손질을 받으신 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도 좋고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맞벌이 양육부담 경감

제주시는 아이돌보미가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 등을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며, 유형은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 등 2가지 형태이다.

시간제 돌봄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연간 480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은 연간 720시간, 영아종일제는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월 120~200시간(1일 최소 6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가격은 시간제는 시간당 5000원,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 기준 100만원으로 시간제의 경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000~4000원, 영아종일제는 월 40만~70만원을 지원해 준다.

돌봄 내용은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교 지원 등이다. 가사활동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보육료와 육아수당을 받는 가구는 종일제 돌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이용실적을 집계한 결과 2254가구가 시간제 돌봄을, 80가구가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물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가족봉사단 발대식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50여 가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청소년가족봉사단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23개소와 1가족-1시설을 연계해 장애인 동반활동, 프로그램 운영, 위문 및 일손돕기 등 월 1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로 13번째 운영되는 청소년가족봉사단은 올해 장애인동반 걷기대회, 밀반찬 나눔행사, 가족봉사활동 보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인터넷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가정 자녀이다.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 학생도 상담 후 ‘답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d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비 지원대상인 것이 노출돼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지원 교육비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인터넷 통신비)등으로 1년간 지원된다.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5개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전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월 13일 한라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5개 지역아동센터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기부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체결한 ‘서민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이정필)의 추천을 받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

센터를 대상으로 지원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에는 2011년 이후 5개 지역아동센터가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일체를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어 이번 후원금이 해당 지역아동센터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 사회복지 1호 시설' 탐방

(1) 제주보육원 · 제주양로원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제주 사회복지 역사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호부터 도내 직능별 및 유형별 사회복지 1호 시설을 찾아 그 발자취를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 연재한다. 그 첫 순서로 아동복지시설 1호인 '제주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 1호인 '제주양로원'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아동복지시설 1호 '제주보육원'

노인복지시설 1호 '제주양로원'

아동복지 암흑기에 한줄기 구원의 빛



“제주보육원이 설립된 것은 1950년대 안을했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50년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술한 '전쟁고아'가 생겨났는데 당시 가족을 잃은 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보육원이 생겨난 것입니다.”

올해 1월 제주보육원장으로 취임한 강지영 원장은 도내 최초의 보육원 설립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주보육원이 문을 연 것은 1951년 4월 1일, 제주지역 최초의 아동양육시설이자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이 생긴 것이다.

보육원 운영을 책임지며 아동복지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큰 걱정이 없었던 제주보육원에 시련이 닥친 것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가 제주를 덮치면서 보육원도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보육원 바로 옆에 있는 월대천이 범람하면서 담장이 무너지고 건물 1층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등 사실상 초토화됐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 쓸 틈도 없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80여명의 아이들은 당시 건물 2층으로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큰 재산 피해를 입고 그동안 보관해 온 역사적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어 빛바랜 사진만 남아”



제주시 도평동에 위치한 제주양로원은 제주지역 최초의 노인복지시설이다. 1956년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그 이듬해인 1957년 1월 19일 무의탁 노인 26명을 수용해 개원했다.

하지만 설립 당시 행정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현재 문서상 법인 설립일은 1957년 4월 13일, 양로원 설치일은 1957년 5월 24일로 돼 있다.

제주양로원은 당시 제주도 산도동에 기와집을 짓고 한국전쟁 등으로 가족을 잃거나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보살폈다.

초대 원장은 여성인 강성옥씨. 제주양로원 낙성식(준공식) 때 찍은 사

이후 제주양로원은 1978년 7월 제주도 영평동으로 이전했고, 1991년 2월 현재의 제주도평동으로 다시 옮겼다.

도평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제주양로원은 노인양상사업에도 뛰어 들었다. 1992년 3월 제주요양원을 설립,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994년 7월에는 양로원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자연동산에서 현재의 불교재비원으로 바뀌었다.

불교재비원은 2004년 9월 양로원 부설 재가복지센터인 '제주노인복지센터'의 문을 열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등 통합적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1951년 4월 삼성혈 인근에 천막치고 전쟁고아 돌봐
제주 최초 사회복지시설...태풍 '나리' 때 큰 피해

제주보육원은 제주도 삼성혈 인근 공터에 천막을 치고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아동복지의 암흑기에 한줄기 구원의 빛이었다.

보육원 설립자는 허친씨로 전쟁 당시 제주도로 피난을 내려와 보육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보육원은 1951년 9월 제주도 화북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겼고, 그 이듬해인 1952년 9월 현재의 제주도 내도동으로 이전했다. 1955년 4월 정부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제주보육원은 1972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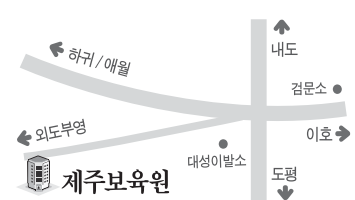
함경도 출신 여성이었던 탁명숙씨가 초대 원장을 맡아 20년간 보육원을 이끌었다. 1972년 3월에는 이곳 보육원 출신인 강도아씨가 제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강 원장은 취임 첫째 아동들이 생활할 건물을 새로 지었다. 강 원장은 지난해까지 30년간

인 자료와 사진도 휴탕물에 잠기는 바람에 모두 버려야만 했다.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65명.

강지영 원장은 “제주보육원 초창기에는 전쟁고아들을 돌봤지만 최근에는 화대반는 아동, 비혼모 아동, 가정해체 아동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심리·정서 치료와 아동 자립에 중점을 두고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제주보육원(743-5020)

1957년 기와집 짓고 무의탁 노인 26명 보살피
반세기 흐르면서 당시 자료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진을 보면 당시 강씨는 젊은 여성이 아닌 평범한 할머니였다는 게 양로원 측의 설명이다.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맨 앞줄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강씨의 왼쪽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당시 김성운 제주도지사, 그 왼쪽이 최수진 제주시장이다.

김진우 제주양로원 사무국장은 “초대 원장은 물론 제2대 원장이었던 양을산씨 역시 지금은 고인이 된 터라 양로원 설립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다”면서 “몇 장의 사진 외에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단법인으로 출발한 제주양로원은 1973년 2월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됐고 1977년 11월에는 초대 원장으로 20년간 양로원을 이끌어 온 강성옥씨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제2대 원장으로 양을산씨가 취임했다.

는 시설로 거듭난 셈이다.

현재 제주양로원(원장 신현권) 입소자는 38명. 입소 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양로원을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숙식 제공은 물론 의료·재활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제주지역 노인복지사업의 역사를 개척해 왔고,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의=제주양로원(747-8337)



지역아동센터 아동 위한 '신나는 문화축제'

제주·서울·부산지역 아동들, 제주시 공연 펼쳐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제주지원단 공동 주최

제주와 서울, 부산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나는 문화축제를 펼쳤다.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제주시지부(지부장 박진옥)와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이정필)은 2월 18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도내 6개 지역아동센터와 문화예술단 꾸마달, 초록우산 드림합창단이 함께하는 '소리로 통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서울·부산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소통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지역에서는 빛과소금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6개 지역아동센터 85명의 아동·청소년들이 평소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한 예술적 재능을 뽐내며 수화, 댄스, 오키나, 클라리넷, 단소 중창, 밴드 공연 등을 펼쳤다.

부산에서는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45명의 아동들이 제주의 푸른밤 등을 노래하며 멋진 화음을 선보였다.

서울에서는 '문화예술단 꾸마달' 아동들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댄스와 밴드 공연을 펼쳤다. 꾸마달은 '꿈이 있는 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예술단이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2월 18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소리로 통하는 문화축제'에 참가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도 음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꿈'과 '희망'의 소중함을 전했다.

박진옥 지부장은 "앞으로

도 우리 아이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지원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천요양원·현대모비스 사랑의떡국 나눔 행사

경천전문요양원(원장 이경숙)은 2월 5일 현대모비스 제주부품사업소와 함께 '2013년 모비스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현대모비스 직원들과 요양원 어르신 및 직원들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요양원에서 직접 떡국을 만들고 나눠 먹으며 설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대모비스 직원들은 이날 사랑의 떡국 나눔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한 후원물품을 요양원에 전달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홍보활동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1월 제주시 동·서부지역과 민속오일시장 등을 찾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시진전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에도 서귀포시지역 오일시장 등지를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창암재활원 가족과 올레탐방

창암재활원(원장은 정은경)은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올레 트레킹 프로그램인 'Dream Road(드림 로드) 가족과 함께 올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의 경우 주 1회(월 3회) 보조교사와 함께 올레를 탐방하고 창암 부모회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월 1회 올레를 탐방한다.

엘린, 휠체어리프트 대형버스 운행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엘린'은 장애인들의 관광 편의를 돕기 위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형버스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돼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으며, 일반 좌석이 탈착식으로 개조돼 휠체어를 15대까지 실을 수 있다. 또 휠체어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비율에 맞춰 좌석 조절이 가능하다.

소/식/마/당

장애인부모회, 자원봉사자 간담회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월 22일 장애인부모회 교육장에서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갖고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장애인부모회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호야봉사팀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장애학생 주말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2월 14일 지역사회 각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탁아동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3년 7월 전국에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 중 최초로 구성됐으며, 매년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순복음복지관, 치매노인보호센터 협약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2월 1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과 요양등급 외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조영숙 관장은 "등급 외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등급 외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일지역아동센터에 책상기부



한라적십자봉사회는 2월 4일 아동복지시설인 제일지역아동센터(시설장 박영식)를 방문해 80만원 상당의 책상 4개를 기부했다.

또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쌀과 라면 등 다양한 식품을 후원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리종합사회복지관, 신년 단배식



아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2월 14일 아리LH아파트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신년 단배식'을 개최했다.

제주은행(허창기)이 후원한 이날 단배식에는 아리LH아파트 임차인회, 노인회, 청년회,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이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고 떡국을 나눠 먹으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엔젤유치원, 장애인보조기기 체험



제주엔젤유치원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다목적강당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생들은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센터 직원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조기기를 사용해 장애체험을 하기도 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시행

제주시니어클럽, 발대식·소양교육 개최
노인 800여명에게 9개월간 일자리 제공



▲제주시니어클럽은 2월 19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은 2월 19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공무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모범적 활동을 통해 건강하

고 활기찬 노년상을 확립하고 아름다운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발대식과 함께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한동휴 회장의 ‘노인사회 참여의 의미와 역할’이란 주제로 소양교육이 진행됐다.

제주시니어클럽이 제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인원은 지난해보다 93명 늘어난 808명으로 일자리사업 참여 기간도 종전 7개월에서 2개월 늘어난 9개월간 시행된다.

일자 유형으로는 시니어간병, 실버인력뱅크, 주간보호센터, 도서관사서도우미, 급식도우미, 공중이용시설관리지원, CCTV상시관제사업, 시니어교육강사, 은빛인형극단, 시니어관광도우미, 보육교사 도우미, 노인일자리모니터링단, 아동·청소년지킴이, 노노케어, 주거환경개선, 시니어손맛, 핸드볼 등이다.

제주애덕의집, 체험홈 운영

제주애덕의 집은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체험홈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체험홈은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자 중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공간으로, 완전한 자립생활을 하기 전 중간 거주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체험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밥 짓기, 요치, 청소, 세탁하기 등 일상생활 훈련은 물론 교통 이용하기, 장 보기, 외식하기 등 사회 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애덕의 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그룹홈·체험홈 지원센터 모형 및 운영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애덕의 집 관계자는 “체험홈은 생활시설에 있던 장애인이 자립하기까지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주거공간”이라며 “자립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시설 장애인이 당당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요양원, 시설 증축 완료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전원요양원(원장 황영집)은 2월 18일 노인장기요양시설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

전원요양원은 시설 증축으로

한경희망네트워크 ‘동지지킴이’ 본격 활동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주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2월 19일 꿈을 담은 한경 희망네트워크 ‘동지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동지’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지역 내 가족구조의 문제와 가족 기능의 부재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통합사례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동지지킴이’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활동단을 구성, 참여자와 매칭함으로써 통합사례 관리의 직·간접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 가정의 문제나 욕구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동지지킴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가정방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23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동제주복지관, 노인 문화대학 운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활용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3월 둘째 주부터 ‘동제주문화대학’을 운영한다.

동제주문화대학은 필수와 선택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필수 프로그램은 동부보건소와 연계해 심혈관,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선택 프로그램으로는 실버댄스 교실, 미술치료, 서예교실 등이 운영된다.

정원은 40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홍주일 관장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문의=784-8281

서장복 사회서비스센터 파란나라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최우수기관

서귀포시장에인종종합복지관(관장)의 ‘사회서비스센터 파란나라’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2010~2011년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2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3개 분야, 357개소를 대상으로 실



시됐다.

2009년 6월 문을 연 사회서비스센터 파란나라는 그동안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미술치료, 심리운동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언어치료, 인지학습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사회서비스센터 파란나라는 앞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2월 식품기탁자

▲강경찬씨=감귤 460kg ▲김봉선씨=무 8개, 동초나물 14.5kg ▲금강축산유통=떡국용떡 150kg ▲대한한돈협회=돼지고기 1200kg ▲김치원=김치 42kg ▲뉴월드마트서사라점=식용유 51개 ▲빵피아모=빵 25봉 ▲삼다유통=삼다수(2L×6) 300팩 ▲서문식품=두부 588모, 콩나물 43봉 ▲신농영농조합=장아찌 90kg ▲아산재단=쌀 200kg ▲이여도지역사회활성센터=유기농채소 37kg ▲제주보리촌=보리빵 77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 150팩, 감귤주스 60개 ▲파라마켓트동광초점=빵 403봉 ▲제주해양경찰서=쌀 200kg ▲한울림색소폰동호회=유기농호박 85개, 유기농채소=97.5kg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470,000	47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570,000	570,000
복지사업후원	1,140,000	566,000
푸드마켓후원	3,100,000	498,21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칼럼

클라이언트 위한 예산, 한 목소리로 요청해야



신 영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예산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 선량들의 아무리 좋은 공약(公約)도 공약(空約)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현실적인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설·기관별로 제각각 요청

올해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3조3666억8500만원의 19.24%인 6477억8528만원이다. 이는 지난 해 사회복지 예산 5421억2200만원보다 약 1056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보건예산 346억3183만원(전체 예산의 1.03%)까지 합하면 사상 최초로 20%를 넘었다. 비율 면에서는 여전히 타 지방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1인당 복지예산은 전국 최고수준이

다. 올해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 중 하나다. 그 목소리 또한 제각각이었다. 어느 단체나 기관이든 거시적이고, 발전적이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요청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도내에는 전체 사회복지시설들의 모임체나 종사자들의 모임, 분야별·직능별로도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여러 사회복지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단체들은 나름대로 제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예산만큼은 협의되거나 조정되지 않은 채 시설이나 기관별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관의 운영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일지 모를 일이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예산 확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인 지 모를 일이지만, 의회

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안타까울 그 자체이다.

지난 해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굴되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하여 개별기관 차원이 아닌 도내 사회복지 전체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할 수 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산 요청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여명, 노인 7만5000여명, 장애인 3만여명이 넘고, 생활시설 107개소에서 4000여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용시설에서도 보육시설을 제외한 143개소에 1일 평균 89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아닌 이들을 위한 예산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나 장애유형, 생활시설·이용시설 구분하지 않고 한 마음은 한 뜻으로 사회복지 예산 요청이 이뤄지길 계사년 새해 소망해 본다.

수기

투병생활과 귀소본능



문 익 순

전제주4·3사업소장

겨울철치곤 비교적 포근한 오후, 전화를 받았는데 차분하면서도 조금은 다급한 목소리였다. 뭔가 중대한 내용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 고향 삼촌인데, 자네 모친이 정신이 몽롱하고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자네가 빨리 병원으로 모셔가야 될 것 같네.”

“네? 언제부터 그랬나요?”

“어제 밤부터 머리가 어지러워 차츰 나아지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아프다고 하네.”

“네 알았습니다. 곧 모시러 갈게요.”

웬만한 불편함엔 자식이 걱정할까 연락을 안 하던 어머니의 성격인지라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시골로 바쁘게 차를 몰았다.

“어제 곧 연락하지 이제까지 왜 그랬어요?”

“봐두면 좋아질 줄 알았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한쪽 눈꺼풀이 내려앉고, 말쑥은 하는데 발음이 어눌하다. 홀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다. 직감적으로 뇌경색, 뇌졸중이 떠올랐다. 급히 병원응급실로 모셔갔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 아닐까 다름까 뇌경색 진단이었다. 혈전이 뇌 곳곳에 퍼져있고 혈관이 막힌 곳도 있어 과연 치유가 될까 불안했다. 그나마 육신이 마비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어머니 ‘뇌경색’ 진단 받고는...

어머니 나이 84세, 하지만 100세 시대가 아닌가. 또래의 동병상련의 노인들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병실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투병모습에 나는 너무 괴로워야 했다. 입원 첫날밤은 아내가 간병하고 나는 집에 왔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며 지난날 어머니 잔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왜유될 수 있을까, 잘못되어 운명하는 것은 아닐까. 자식 6남매지만, 고향에 있는 우리 부부와 동생내외가 밤낮을 교대로 간병했다. 입원 열흘째 되던 날 병세가 호전되어 일단 퇴원했다. 일주일 후 통원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 우리 집으로 모셨다. 정상 회복된 게 아니어서 종일 누워만 계신다. 귀여운 증손자가 재롱을 부려도 별로 달갑지 않은 눈치다. 육신이 고통인데 어찌 기쁨의 여유가 있겠는가. 우리 집에 온지 이틀이 지났는데, 시골로 가겠다고 한다.

“아직 머리도 어지럽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시골에는 왜요?”

“여기에 있으니 말벗도 없고, 갑갑해서 정신이 더 없다.”

“그렇지만 아직은 곤란해요. 며칠만 더 있다가 병원진료를 받고 가시죠.”

“아니, 집에 가야 벗도 만나 정신이 들고 병도 나아질 것 같다.”

“알았어요. 꼭 그러시면 내일 가지요.”

불안하지만 어머니의 완강함에 어쩔 수가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당신이 사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귀소본능이 엄습하나보다. 자식보다 답소를 나눌 벗이 필요하고, 고독과 속박보다는 자유분방한 일상이 그리운 것이다. 퇴원 3일째 되는 날 어머니를 시골로 모셔갔다. 며칠 후 병원을 다시 찾아 혈액검사와 처방을 다시 받고 약물치료 중에 있지만, 한 달이 경과한 즈음 많이 쾌차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기고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교육 레시피



강 은 숙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기계발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생존하게 만드는 무기이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기계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21세기 빠른 시대적 변화와 함께 개인의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주체적인 삶, 새롭고 가치있는 삶 등 평생에 걸친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성장을 통한 평생학습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필요에 따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전문교육 및 문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2013년 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풍부한 표현력과 감성적 소통으로 즐길 수 있는 예술활동 장려는 물론, 도민 모두가 즐기고 배우는 생활속 예술활동 활성화로 창조적 에너지와 활력 넘치는 삶을 지향하는 문화예술, 인문교양, 주말&야간, 문화동아리 역량강화, 찾아가는 문화교육 등 5개분야, 43개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잠재된 ‘끼’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문화교육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연극, 아크릴화, 전통매듭, 핸드드립 등 32개 과정, 1751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창조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일상 생활의 문화화를 이루고 있다.

수강생들의 연령층은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매우 다양하며, 취미 혹은 자기계발 등 참가

의 이유도 다양하지만, 생활속 예술활동을 통한 꾸준한 학습으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3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문화교육은 쉽게 배우는 클래식 음악여행, 오키나와 첫걸음(초급), 재미있는 상상 그림동화(초급), 천연화장품 레시피(주말), 누구나 쉽게 그리는 드로잉(초급,야간) 과정을 마련하여 고품격 문화향유와 문화창조 역량의 산실로서 잠재역량 개발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신바람 나는 재미와 뜨거운 도전이 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 참여로 활력 넘치는 행복한 3월이 되길 바란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기고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홍종우
서귀포청년회의소 회장

청년들의 응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지닌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 세계 JCI 회원국가와 활발한 교류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서귀포 JC에서는 그동안 많은 복지증진사업과 기부문화의 활성화 부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최근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JCI 몽골리아리더 JC와 연계하여 몽골국의 저소득 가정(1가구)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과 장학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서귀포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러브하우스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실시 △어린이지킴이 활동사업 △지역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사업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등의 다양한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서귀포 JC 회원들의 한마음 한뜻을 모아 실천해 나가는 등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10여개국, 6000여 지역에서 20여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JCI에서는 소말리아 모기장 보내기 지원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6개 지구, 전국 350여개 지역에서 1만

7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 JC에서는 어린이 지킴이사업, 사랑의 메신저운동,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진행하는 등 인류에의 봉사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JCI와 한국 JC의 정신을 이어 받아 이번 우리 서귀포 JC에서는 서귀포 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2013 지역 사랑 리퀘스트 ‘나눔으로 희망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 수술을 미루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수술비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금이나마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 등의 건강증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전 청년회원의 뜻을 모아 저소득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맞춤형 의료기기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회의소는 조직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행동하는 청년리더’ 서귀포 JC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나눔으로 희망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첫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지역 사랑 리퀘스트 희망 릴레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동참해야 할 아름다운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 감동의 눈물을 함께 나누는 2013년이 되었으면 한다.

기고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 ‘문화바우처’



이애순
제주시노형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관심은 이제 저소득층에 문제가 아닌 전 시민이 공통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제주지역 특성 및 시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흔히 ‘바우처 사업’이라 칭한다.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카드이며 신청대상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면 가능하다.

또한 만10세~1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는 개인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개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카드는 뮤지컬·연극 등 공연 및 전시 관람, 영화관람, 도서 및 음반구매, 온라인 음악콘서트 등 프로그램 이용이나 구입이 가능하다.

문화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용기간은 2014년 2월 28일까지이며,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당해년도 사업기간 안에 전부 사용해야 된다.

또한 미사용 금액은 사업기간이 지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잔액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자동 소멸된다.

우리 시에서는 조그만 혜택이라도 많은 주민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카드 발급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카드 발급대상자 해당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전년도 기 발급자 중 올해에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연 1회에 한하여 5만원의 재충전이 가능하여 문화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수혜 기회 제공과 시민들이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동정

지체장애인 이정희씨
대한문학 신인문학상 당선

지체장애인이정희씨가 장애를 딛고 시인으로 등단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소속 장애인문화회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인 이씨가 계간 대한문학 제41회 시부문에서 신인문학상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씨의 당선작은 ‘다섯손가락’ 등 모두 3편. ‘다섯손가락’이란 시는 소아마비로 인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온 이씨의 삶의 여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씨는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하반신 마비가 된 후 휠체어에 의지해 힘겹게 살아왔는데 그 시름을 글로 달랐다”며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김길웅 선생님과 회원분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協
회장에 강철남 소장 선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강철남 소장이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는 2월 21일 제주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철남 소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회장은 제주청소년지도사회 회장,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제주도공동모금회 시민감시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5년 2월까지 2년간이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11년 전국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는 어려운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등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연합협의체로 지난 2003년 설립됐다.



양애옥
서귀포시 노인복지담당

‘배려하는 삶, 즐거운 생활, 꾸준한 운동, 자연식 섭취.’ 어느 강의실에 걸려있는 화훈이다. 우리 누구나에게와 닿는 슬로건이 아닐 수 없다. 대체 어느 학교의 화훈일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상상의 나라를 펴보세요.

이 화훈은 비운의 세대라 불리는 어르신들이 항학열을 불태우는 노인대학의 화훈이다.

지난 2월 4일 대정노인대학을 시작으로 안덕, 남원, 표선, 성산 등 서귀포시 읍면 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우리 노인대학 졸업식장의 진풍경은 우리 어린이집 초등학교 졸업식장을 연상케 했다. 초등학교졸업식에서 가장 큰 상으로 평가했던 개곤상과 정근상이 노인대학 졸업식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화장님이 대상자를 호칭할 때 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어린 소녀소년들처럼 “네”라고 대답할 땐, 어

린시절 졸업식장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나이드신 부모님의 졸업을 축하하러 꽃다발을 들고 오신 자녀분들과 어느 마을 리장님, 그리고 지역의 어른, 정신적 지주의 섬김이란 마음을 담아 장미로 축하를 해 주시는 읍장님의 정성도 참 보기가 좋다.

어느 화장님의 말씀처럼 “나리를 잃어본 세대이고, 4·3을 겪은 세대이고,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이며, 보리고개의 어려움을 온 몸으로 겪으며 새마을 운동을 주도해 국가부흥에 기여한 한 세대이다”라는 말씀이 귓전을 스칠 땐 알 수 없는 격세지감이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이 보다 더한 비운을 겪은 세대가 어디 있을까?

감기몸살 내 몸 걱정, 내 가족의 평안을 걱정하면서도 단 한번도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 세대들이 겪었을 고통과 비운을 고민해보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우리 어르신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지금의 이 나라와 우리 향토가 지켜지고 발전해 왔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사회가 노인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다하여 정신적 지주로 만드는 행동실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장애 요소 없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 만들어야”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주희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 등 관광약자 위한 복지관광 인프라 부족 박주희 의원 “관련 조례 만들어 관광수용태세 개선해야”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앞둔 제주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복지관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광’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행복추구권인 만큼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복지관광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관광약자에 대한 시혜로 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본권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관광’은 관광약자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광기본권 보장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복지의 실현을 의미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10년 펴낸 ‘전국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010년 ‘장애인관광 모니터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들은 관광활동 참여 제약 요인으로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정보 부족, 여행경비 지원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80%가 장애인 여행을 위한 법규 마련과 함께 시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복지관광을 ‘시혜’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등록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광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자원봉사자, 의료인을 동반하고 장기체류형이 많은 만큼 새로운 타깃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들이 핵심 관광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소극적 형태의 실버관광을 넘어 본격적인 실버복지관

광 시대가 도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대비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간 장애인 관광과 관련해 산발적인 정책 추진으로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유럽 등에서는 복지관광이 관련업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주도가 선진 관광지로써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관광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관광수용태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결국 장애인이나 노인층 등 특정계층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로 나선 엘리트어 이보교 팀장은 도내 렌터카업체 69곳 1만5883대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특장차나 특수개조한 차량은 4개 업체에 8대뿐으로 전체 렌터카의 0.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용 렌터카는 대여요금도 일반 렌터카에 비해 30% 높다. 장애인 콜택시도 7대밖에 운영되지 않아 도내 장애인 수요를 충당하기에도 버겁다.

도내 전세버스 59개사 1998대 중에서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은 전혀 없다.

숙박업체 중에서도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만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입실조차 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입실은 하더라도 화장실에 문턱이 있어 휠체어가 오가지 못하거나 화장실이 비좁아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곳이 대다수다.

숙박업체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숙박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며 여행사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광지를 추천하기도 한다.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없다.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 장애인 관광접근현황이 있긴 하지만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팀장은 “복지관광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애로사

항이 많다”며 앞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복지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주한라대 문성종 교수(관광경영과)도 장애인들의 관광 정보 접근성에 대해 지적했다.

문 교수는 스페인의 사례를 설명하며 각 관광지를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관광 가이드북과 인터넷 사이트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관광공사나 관광협회가 장애인 단체와 협력, 장애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이런 관광 정보 가이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는 우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신체적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관광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관광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복지관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례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의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